

오순절 후 열네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4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8월 29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42 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54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5 번 이사야(Isaiah) 3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야고보서 (James) 4:17-5:6	조희연 집사
찬 양 Anthem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대
설 교 Sermon	“신앙을 삶으로 (10) –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김일선 목사
(Living out Your Faith – Anyone Who Knows the Good)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69 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21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보다는,

세상의 그릇된 욕망을 좇으며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믿음과 삶이 하나되는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16:19, 시 51:1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한글개역 **약4:17**)

“Anyone, then, who knows the good he ought to do and doesn't do it, sins.” (NIV **James 4:17**)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29 (주일)	8/30 (월)	8/31 (화)	9/1 (수)	9/2 (목)	9/3 (금)	9/4 (토)
	삼상22	삼상23	삼상24	삼상25	삼상26	삼상27	삼상28
본문	고전3	고전4	고전5	고전6	고전7	고전8	고전9
	겔1	겔2	겔3	겔4	겔5	겔6	겔7
	시37	시38	시39	시40,41	시42,43	시44	시45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9/1수 오후7:30)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고후11:16-33)
토요 새벽기도회(9/4토 오전6:30)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50:1-15)

지난 주일(8/22) 말씀

신앙을 삶으로 (9) –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약 4:11-17)

“그 사람의 자랑 거리가 무엇인지? 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가리켜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악한 것이라고 까지 말씀했습니다(약4:10).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순간 만큼은 이미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렘9:23) 고 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기 자랑 뿐만 아니라, 피차 비방하지도 말고, 또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약 4:10-11). 특히 본문에서 ‘비방하다’으로 번역된 헬리어(카타라레오)는 ‘누군가를 적으로 간주하여 말하다는 뜻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해야 할 대상(즉, 형제, 자매, 이웃)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약4:14)이기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은 (편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 어거스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허탄한 자기 자랑을 버리고, 2)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3)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